새로운 소행성 발견 및 추적 관측 연구

전영범, 천무영, 박윤호, 이병철, 한원용
한국천문연구원

보현산천문대 1.8m 망원경을 이용하여 2000년 11월부터 2001년 10월까지의 새로운 소행성의 발견과 발견된 소행성의 추적관측 결과 50여 개의 새로운 소행성을 발견하였으며, 이 중에서 안정된 궤도요소가 구해진 것은 10개이다. 발견된 소행성이 고유한 번호와 이름을 가지기 위해서는 충을 2-3회 이상 지나는 지속적인 관측이 필요하다. 이들 10개의 안정적 궤도요소가 구해진 소행성 중에서 과거의 관측 자료가 더해져서 이미 2-3회의 충을 지난 자료가 확보된 4-5개의 소행성은 이번 관측기간에 관측 자료를 보강할 경우 고유 이름을 부여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 2001년 하반기부터는 지구접근천체의 확인 관측을 병행하여 새로운 소행성을 찾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.